

KNOWING GOD

여호와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Shalom

이스라엘의 평화를 구하라

שְׁאַלוּ שְׁלוֹם יְרוּשָׁלַם

Sha'alu shalom Yerushalayim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알리야

이스라엘의
회복과 공활을 구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렘 31:7]

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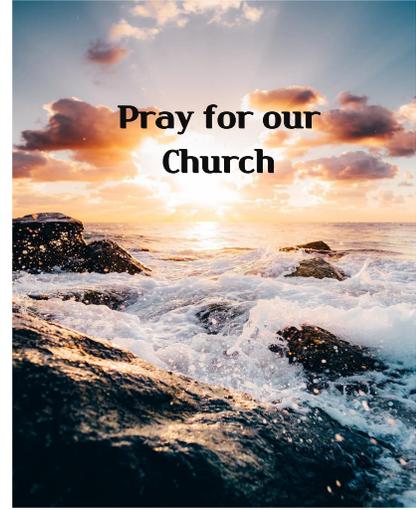
이스라엘의 구원을 구하라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시 27:4]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움 : ‘נוֹאֵם(노암)’은 아름다운, 선한, 기쁨을 주는, 친절함, 은혜스러운의 의미를 가진다

교회 중보기도 제목

1. 성전 예배와 바이러스가 없는 일상으로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2. 한기홍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충만, 말씀의 능력 및 시대적 사명 감당, 영적부흥의 대역사가 일어나도록(특히 성대 회복과 눈 보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3. 김광신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세계 선교사역을 위해 (한국에서의 사역을 위해)
4. GMT 모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사역을 위하여
5.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도록
6. JAMA 중보기도 및 일천번제 특새와 성경 다독 읽기에 전 성도가 동참하여 은혜 받도록
7. 주일예배(1부~4부)와 금요성령집회를 통해 가정마다 믿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8.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회복과 미국의 청교도 신앙회복을 위하여
9. 개인기도 제목들의 응답을 위하여



☞ 성경 다독 읽기 - 7/27(월)~11/30(월), [127일간] 구역: 소년지서 12 권, 신약: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 자마 컨퍼런스 (8/17-29) 주제: "주여, 교회가 다시 부흥으로 타오르게 하소서(행 2:42-27) 장소: 본 교회 (새벽예배)

GMT 선교지 기도제목

COVID 19 감염
치료와 보호하심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주선민 선교사님(타타르스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호전중
- 강형민 선교사님(브스쿠)은 조금씩 호전 중. 성도 25 명의 완쾌를 위해
- 김봉년 선교사님 교회(에카테린) 사역자 4 명과 성도 한 명

병환중이신
선교사님을 위한 중보기도

- A국 이에신 선교사님 항암치료
- T국 이해영 선교사님 항암치료
- 스웨덴 김명자 선교사님 항암치료
- 캄보디아 이선표 선교사님 심장 건강
- 유 00(H 국) : 항암치료
- 케냐 강영순 선교사님 류마틱 자가 면역 결핍증 통증
- 블라딕보스톡 서금순 선교사님 교회 찬양리더: 엘레나 유방암판정
- 은퇴선교관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사역을 위한 기도

- 최윤섭선교사님(디스버) 생명을 연장해 주신 주님께 끝까지 사명 감당하도록
- 김재한선교사님(파나마) 예비하신 학교, 농장부지 구입을 위해
- 김도현선교사님(베네주엘라) 계속 락다운 되어 있는 상황이 호전되도록
- 백원일선교사님(나바호) 3 차 방역팀이 방역과 구호용품을 전달 예정(8/28)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교회의 공예배들이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안전을 지켜 주시고 바이러스의 재확산이 없게 하옵소서. 예배의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도 현장 예배와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깨어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2.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2 천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78 만 명에 이릅니다. 미국 확진자도 550 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몇 달 간 Covid 19의 급증으로 올해 12 월까지 누적 사망자가 30 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들이 일어나 비상시 비상 기도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죄악과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품고 통회 자복하며 성령께서 온 땅을 성령의 물로 덮어 주시도록 무릎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5. 하나님,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온라인 학교 교육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합니다. 모든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삶의 본이 되며, 가정 예배를 통해 가정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더해 주셔서, 세상문화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비전 속에 굳건한 믿음과 강한 능력의 차세대 리더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6. 하나님, 대통령 이하 국가적 리더들과 주, 카운티, 도시 리더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시고, 하늘의 지혜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트럼프 행정부에 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앞으로 나흘동안 온라인으로 열리게 됩니다. 11 월 선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말씀으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7. 미 상무부는 화웨이(중국의 통신 장비 및 스마트폰 제조 업체) 등이 중국의 스파이 행위와 사이버전쟁에 이용될 수 있음을 우려해 152 개 업체를 상대로 제재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위성자들을 지켜주시고 첨단 기술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스파이 행위는 차단되게 하옵소서. 중국과의 외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좇게 하옵소서.
8.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서는 80 일 연속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폭동'을 선언하였습니다.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소속 경찰력이 투입돼 최루탄과 섬광탄을 이용하여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가운데 양측간에 충돌이 격화 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시위나 공권력의 남용은 근절되게 하옵시고 더 나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민족과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미국이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여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검비하고 기도하여 내 영적임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찌라 [대하 7:14]

COVID-19 Dashboard

미국 통계(8/18/20)

확진자: 558 만 명
사망자: 17 만 3 천 명

캘리포니아

확진자: 62 만 8 천 명
사망자: 11,200 명

Orange County

확진 4 만 3 천명/
사망 809 명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차별금지법안이 폐기되도록

-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제 3의 성을 인정하는 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옵소서
- 크리스찬 법조인('복음 법률가회')들이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민족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 나라에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한 법이 제정되게 하시고 진리를 거스르는 악법은 파하여지게 하소서.
-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9월에 예정된 퀴어문화축제가 무산되게 하소서.

2. 모든 어두움의 영들이 한국 땅에서 쫓겨나도록

- 한국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 받고 소멸되게 하옵소서.
-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 하시고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이길 믿음을 허락 하옵소서.
-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 확진자 527명으로 집계 되면서 교회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확진자들을 치료해 주옵시고 더 이상 확산 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 민족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우리의 교만과 분열, 거짓과 허영심, 음란, 우상숭배 등 모든 부분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이 땅의 죄악을 사하옵소서.

3. 한국을 위기에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합니다

- 한국의 양극화와 분열을 막아 주옵시고 교회들이 먼저 주 앞에 마음을 찢고 거룩함을 회복하므로 땅과 민족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 나라가 온통 분노의 물결입니다. 타인을 비난하기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배려하는 문화로 변화하게 하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1. 북한 공산주의의 정사와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힘을 잃고 무력화 되게 하옵소서.
2. 북한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홀로 높이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3. 북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며, 2,500 만 북한 영혼들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수많은 생명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4. 북음전파를 가로 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이 홍수처럼 밀려들어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북한은 이번 장마철 기간에 전국적으로 3만 9296 정도의 농경지 피해가 발생하고, 1만 6680 여 세대와 공공건물 630 여 동이 파괴 침수되는가 하면 도로와 다리, 철길이 끊어지고 발전소 연체(독)이 붕괴되는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강원도 김화, 철원, 회양, 창도군과 황해북도 은파장풍군을 비롯한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커다란 생활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외부 원조는 받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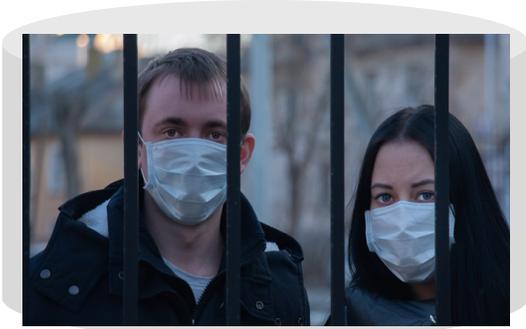
- 북한의 이재민들을 위로하시고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 생활고로 고통 하는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나라의 위정자들도 이념이 아닌 국민을 사랑하는 리더십으로 변화 되게 하옵소서. 인권의 보호와 존중이 지켜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 이 번 수해로 코로나와 다른 이질병들이 확산 되지 않게 막아 주옵소서.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 베트남*뉴질랜드 코로나 재확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위해 국경을 봉쇄한 베트남과 뉴질랜드에서 각각 100 일, 102 일 만에 국내감염 사례가 나온 뒤 재확산하면서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는 국경 봉쇄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16 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베트남에서는 지난 7 월 25 일 다낭에서 코로나 19 국내감염 사례가 100 일 만에 다시 나왔다. 섬나라인 뉴질랜드도 지난 3 월 19 일 자정부터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지만, 지난 11 일(현지시간) 오클랜드에서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 4 명이 나왔다. 국경 봉쇄에도 불구하고 지난 5 월 1 일 이후 102 일 만에 국내 감염이 다시 시작됐다.



† 태국, 수도 방콕서 대규모 반정부 집회… 탄압 본격화 맞서

태국 정부가 반정부 세력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한 가운데 16 일 오후 3 시 방콕 시내 민주주의 기념비 앞에서 '자유 국민운동'과 '자유 청년' 등이 주최한 반정부 집회에 대학생 등 최소 5000 명이 참가하여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개최됐다고 16 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이날 집회는 당국이 지난 7 일 반정부 활동가 2 명을 폭동 선동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가 보석으로 석방한 데 이어 지난 14 일 유명 반정부 활동가인 빠릿 치와락을 체포했다가 다음 날 보석으로 풀어주는 등 탄압을 본격화한 가운데 이뤄졌다. 집회 참석자들은 군부 제정 헌법 개정, 의회 해산 및 총리 퇴진, 반정부 인사 탄압 금지 등을 촉구했다.



† 러시아 코로나 백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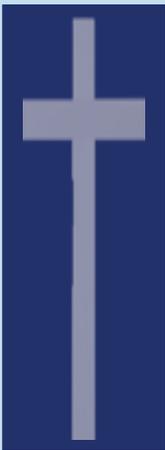
러시아가 자국이 개발했다고 밝힌 코로나 19 백신을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15 일 러시아 보건부를 인용, 자국 개발 코로나 19 백신 '스푸트니크 V' 생산이 시작됐다고 15 일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해당 백신은 N.F. 가말레야 연방전염병 미생물연구소가 개발했으며, 지난 11 일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이로써 러시아는 세계 최초 백신 생산국이 됐다.러시아 직접투자펀드 수장인 키릴 드미트리프에 따르면 전 세계 20 개국에서 10 억회분 이상의 백신 접종 신청이 접수됐다. 다만 해당 백신의 안전성에 관해선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필리핀 반정부 시위

필리핀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공포정치에 반기를 든 20 대 전후 청년들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고 16 일 필리핀 현지 매체가 전했다. 지방 검사 출신인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6 년 대선에서 강력한 범죄 척결 의지를 내비치며 당선됐지만 지난 4 년여간 집권과정에서 공포정치와 반대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에 국민적 피로감이 커지고 있으며,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방역당국 통제에 응하지 않으면 사살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 단계로 격상, 상당한 제약 예상
 - 2주간 서울 경기지역, 유흥주점, 대형학원, 부패식당 등 영업이 금지/ 종교시설: 집합 제한 행정명령
- 한국: 7월 신규 실업자 60만 넘어섬 (한국 코로나 확진: 15,318명 사망:305명)
- 중국 양쯔강에 네번째 홍수 발생 : 최근 두 달 넘게 폭우가 내려 6300만 명의 이재민 발생/ 30조 경제 손실
- 중국에서 코로나 완치 후 재양성 판정 사례가 잇따라 발생
- 인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연 5일 6만 명 대 기록
- 3주 전 인도양 남부 모리셔서 해역에서 좌초한 일본 화물선 'MV 와카시오' 기름 유출로 생태계 회복에만도 수십 년 예상
- 미 전직 고위 당국자 13명, 문대통령에게 “북인권단체 탄압 중단 촉구 서한”
 - 현 정부가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로 북송 시켰고,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으며, 25개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한 사무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상당한 무서운 위협이라 지적.
- 레바논 베이루트 항만의 대폭발 사고 뒤 레바논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속히 증가



Pray for California :

1. 코로나 누적 환자 60만명 돌파
2. 산불 터네이도 경보: LA 북쪽 65마일 지점 레이크 산불 발생 피해 가주 랜스 카운티 '로열턴 파이어' 산불에서 파이어네이도 발생
3. 21일까지 폭염 주의보
4. 전력난으로 지역에 따라 '순차 정전제'를 실시-약 60만 가구가 최대 12시간 피해

파이어네이도 현상: 북가주에 발생한 시속 60마일의 돌풍



서울시가 예정된 광화문광장 일대에서의 집회를 금지한데 이어 다수의 시민들에게 '집회를 추진할 경우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담긴 '재난문자'를 보내기까지 해 빈축을 사고 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14일 보도했다.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의 목적이 '감염병 확산 방지 대책'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정치 집회 개최를 방해하는 데에 있다는 지적이다.

광복 75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의 방향

- † 이념의 갈등으로 인해 더 이상 대립하는 것을 청산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지켜나가도록
- † 올바른 법치의 실현이 이루어지도록
- † 대북정책도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룩하도록
- † 보수와 진보, 사회적 양극화, 노사의 갈등, 갑질 문화, 빈부의 격차 등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분열에서 화합의 나라가 되도록
- †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고 위정자들은 국민들을 사랑과 존중으로 섬기도록
- †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의 사회 그리고 공동체성을 다시 회복하도록
- †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하고 정부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며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살롬 나비 제공〉

광
복
7
5
주
년

ISRAEL

BANIAS NATURE RESERVE

이스라엘 뉴스

✧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가 미국의 중재로 외교 관계를 맺기로 했다고 지난 13 일 전격 발표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걸프 아랍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공동의 적'인 이란에 맞서기 위함이라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UAE는 단지 '주권적 결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두 국가의 행보에 대하여 이란과 팔레스타인은 분노하고 있으며 이슬람 국가인 터키는 UAE 와 외교 단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 이스라엘 코로나 누적 감염자 수는 94,751 명이고 사망자 수는 692 명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 국방부는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가짜 링크트인 계정을 만들어 국방 기밀정보를 훔치려 한 시도를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커들은 다국적 기업 최고경영자(CEO) 또는 고위 임원 행세를 하며 이스라엘 주요 방산업체 직원들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는 이메일을 보내 이들의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접속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지난 14 일 밤 이스라엘군은 전투기와 탱크를 동원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해군 부대 주둔지, 지하시설, 감시초소 등을 공습했다고 15 일 예루살렘포스트 등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로 인화성 물질을 단 풍선들이 날아온 데 대한 대응이라고 이스라엘군은 설명했고 이날 이스라엘 영토에 들어온 이런 풍선들로 인해 21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한 주 동안 가자지구에서 날아온 풍선들로 이스라엘 내 120 여 곳에서 불이 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예루살렘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이란 대 이스라엘-사우디 연합의 대결이 시작됐다

[정의길의 세계만사]

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 관계 정상화 의미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연합의 관계 정상화에 혐의에 분노한 팔레스타인 시민들이 14 일(현지시각) 요르단강 서안 야타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의 국기를 태우며 시위를 하고 있다. 야타/EPA 연합뉴스

중동에서 이란 대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연합의 대결이 시작되고 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13 일(현지시각) 발표한 전면적 관계 정상화 합의가 그 신호탄이다. 이번 합의는 중동의 세력구도 재편이라는 지각 변동을 예고한다.

아랍에미리트연합은 그동안 걸프지역 수니파 왕정국가 사이에서 선행자 노릇을 했다. 아울러 이 지역 맹주인 사우디를 대리하는 역할도 해왔다. 이스라엘이 이란 아랍에미리트연합과 수교를 합의한 것은 걸프 지역 보수 왕정과의 관계 정상화를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사우디와의 관계 정상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는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 대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연합의 대결 구도로 중동의 세력 재편이 본격화됨을 예고한다.

중동의 세력 재편이 시작됐다

두 나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재로 발표한 관계 정상화 합의는 크게 세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이스라엘이 중동 국가와 세번째로 수교하게 됐다. 이스라엘은 1979년 평화협정을 맺은 이집트를 시작으로 중동 국가와 처음으로 관계 정상화를 이룬 뒤 1994년에 요르단과도 수교했다.

둘째, 이스라엘에게 아랍에미리트연합은 수교를 하는 3 번째 중동 국가지만, 그 의미는 이집트와의 평화협정에 준한다. 이스라엘과 수니파 아랍국가, 특히 걸프 지역의 수니파 보수왕정 사이의 관계 정상화의 시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랍에미리트연합과의 관계 정상화를 계기로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지위와 영향력은 주변국들도 동의하는 지역 패권국 수준으로 격상될 수 있다.

셋째, 두 나라 관계 정상화로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병합 계획이 중단 혹은 연기된다. 두 나라 수교의 조건으로 이스라엘 정착촌이 있는 서안 지구에 대한 병합을 중단키로 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평화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 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연합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라크전’ 이후 접촉 잦아진 이스라엘-사우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연합 관계 정상화의 공통분모는 ‘반이란’이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이란은 이스라엘과 사우디 모두에게 주적으로 떠올랐다. 걸프 지역에서 이란을 견제하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이라크 전쟁으로 몰락하자, 이란의 영향력이 걸프 지역을 넘어 중동 전역으로 확장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란은 강경한 반이스라엘 노선을 취하는데다, 이란의 이슬람공화국과 시아파 정체성은 사우디로 대표되는 수니파 왕정에게 최대 위협이었다. 이란은 중동에서 시아파 연대를 구축해, 이라크 전쟁과 시리아 내전을 거치며 그 영향력을 더욱 확장해왔다. 이라크 전쟁 이후 이라크에선 시아파 정부가 탄생했다. 시리아 내전 당시, 이란은 바샤르 아사드 정부를 후원해 사우디 등이 지원한 반군세력들을 패퇴시켰다.

이란-시리아의 아사드 정부-이라크의 시아파 정부-레바논의 헤즈볼라-팔레스타인의 하마스도 이어지는 이란 주도의 시아파 연대 세력의 영향력이 시리아 내전 이후 급속히 신장됐다. 이란의 영향력 확대는 수니파 종주국을 자처하는 사우디가 반이란 연대를 꾸리게 하는 계기가 됐다.

시리아 내전을 거치면서 사우디 등 걸프지역 수니파 보수왕정과 이스라엘의 사이의 접근도 이뤄졌다. 사우디 등 걸프 지역의 수니파 보수왕정 국가들은 4차례의 중동전쟁에서 적국이던 이스라엘보다는 이란이 더 큰 위협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역시 최대 위협인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걸프 지역 국가들을 향한 접근을 본격화했다.



요시 코헨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나섰다. 모사드의 수장 요시 코헨은 최근 몇 년 동안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연합 이집트 등 아랍 국가들의 정보기관장들과 수시로 만나 관계 정상화의 초석을 다져왔다. 특히 이란의 핵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주도한 이란 핵협정(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후 사우디 등은 이스라엘 쪽에 한발 더 다가가게 됐다. 코헨은 2018년 오만의 국왕 술탄 카부스 빈 사이드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국민방문으로 초대토록 하는 공작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두 나라가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데도 정상의 국민방문이 이뤄진 것이다. 이스라엘과 사우디 등 걸프 지역 국가들은 민간 차원 교류도 활성화시켰다.

걸프 지역 국가 중 가장 개방적인 나라로, 지역 허브를 자처하는 아랍에미리트연합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물꼬를 트는 국가로 부상했다. 코헨은 아랍에미리트연합을 수차례 비밀방문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확산 사태는 두 나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모사드는 아랍에미리트연합 쪽을 통해 이스라엘에 부족한 의료장비를 조달했다. 지난 6월에는 코로나19 대처에 필요한 방역물품 수송을 명분으로, 두 나라 간 최초의 화물기 직항운행이 이뤄지기도 했다.



팔레스타인에 전달할 코로나 19 방역물품을 실은 아랍에미리트(UAE) 에티하드 항공의 화물기가 지난 6월 19일(현지시각) 이스라엘 텔아비브 인근 벵구리온국제공항 도착해 있다.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지 않은 두 나라 간 최초의 직항편이다. 로드/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의 '중동평화안'이 추동한 관계 변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취임 이후 추진해온 중동평화안도 두 나라의 관계 정상화를 추동했다. 트럼프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앞장서 추진해온 중동평화안은 예루살렘 및 서안지구의 정착촌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 선포를 허용하되, 나머지 70% 지역에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수립하도록 추진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에 따라 서안지구 정착촌 병합을 천명하고, 이를 밀어붙이려고 해왔다.

하지만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병합은 자신들과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를 무위로 돌릴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돌려 말해, 이스라엘이 서안지구를 병합하지 않으면, 관계 정상화가 급진전될 것이란 뜻을 시사해온 것이다. 유세프 알옥타이바 미국 주재 아랍에미리트연합 대사는 지난 6월 이스라엘 일간지에 '병합이나 관계 정상화냐'라는 제하의 기고를 통해 이스라엘이 서안지구 병합을 중단하면 아랍에미리트연합과의 관계 정상화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병합은 명확하고, 즉각적으로 아랍 세계 및 아랍에미리트연합과의 개선된 안보, 경제 및 문화 관계에 대한 열망을 뒤로 돌릴 것"이라며 '병합이나 관계 정상화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 쪽의 관계 정상화 의지를 확인한 미국 쪽은 쿠슈너를 내세워 네타냐후를 설득해 타협을 이끌어냈다. 부패 혐의로 기소된 네타냐후도 재판에서 살아남으려면 교착상태에 빠진 연정을 성공시켜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 그는 아랍에미리트연합과의 협정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13일에 두 나라의 관계 정상화 발표 직후 이뤄진 방송 연설에서 네타냐후는 "연정 대상과의 협상에서 큰 진전을 봤다"고 발표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이어 오만과 바레인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설 수 있다. 사우디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설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우디의 실질적 통치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루고 싶어하나, 국내의 보수적인 이슬람 세력의 반대로 주저하고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중동평화안을 관철시킬 입지를 마련했다. 최대 난관이던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병합 문제가 해소됨으로써, 중동 국가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됐다. 팔레스타인에게도 동참에 대한 압박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쪽에선 이번 합의를 두고 ‘등 뒤에 꽂힌 배신의 칼’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팔레스타인은 이번 합의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 걸프 지역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수교함으로써 고립이 더욱 심화되고, 미국과 이스라엘로의 양보하라는 압력이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물론, 두 나라가 이번 합의를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팔레스타인의 언론인 다우드 쿠탑은 <뉴욕 타임스> 인터뷰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은 이미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했고, 병합 계획도 이미 연기됐다”며 “우리가 당분간 듣게 될 야단법석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에서 승자는 없다”고 말했다. 이미 정해진 대로 갈 길을 가는 것일 뿐, 달라진 것이 없다는 말이다. 게다가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에 접근하는 아랍 국가들로부터 버림받는 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이스라엘-아랍 관계에서 자신들이 차지하는 몫도 커질 수 있다.

이란에게도 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연합의 관계 정상화는 ‘진행되던 사안이 공식화됐다’는 의미를 지닌다. 자신에 맞서는 이스라엘-사우디 연합이 가동되는 첫 단추가 끼워진 것이다. 이란은 레바논, 시리아, 카타르, 예멘 등지에서 사우디를 포위하고 위협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이런 이란을 지금처럼 압박과 봉쇄만으로 다룰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이번 합의를 증재한 트럼프는 자신이 재선 되면 몇달 만에 이란과의 합의를 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당선되면 이란 핵협정을 부활 시킬 것이라고 공약했다. 결국, 이란 대 이스라엘-사우디 연합의 대결 구도가 장기적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지형을 새롭게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ka/957902.html#csidx9f5f6f93ea42f08ababd17288c255f7>

이스라엘 VS 이란 역사



고대 페르시아 왕국에서 왕(페르시아인)과 왕비(유대인)로 인연을 맺었던 이란과 이스라엘은 1979년 반미를 내세운 이란혁명이 성공하자 원수지간이 되어 버렸다. 왼쪽부터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전 이란 대통령과 이란 혁명을 성공시킨 아야톨라 호메이니 최고 종교지도자, 베냐민 네타냐후 현 이스라엘 총리. 가운데 사진은 1979년 이란혁명 당시 탱크에 올라타 테헤란 거리를 행진하는 혁명군들.

- 1948 이스라엘 건국 : 이란, 터키 이어 중동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인정
- 1967 아랍국 VS 이스라엘 7 일전쟁 : 팔레비 왕조, 이스라엘에 대규모 원유 공급
- 1977~1979 : 이란 이스라엘, 비밀리에 미사일 공동 개발
- 1979 이란 혁명 성공 :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 지도에서 쓸어버린다고 선언
- 1997 모하마드 카타미 대통령 : 이스라엘은 불법국가, 기생충
- 2000 아야톨라 알리 카메네이 이란 최고 성직자 : 이스라엘은 암덩어리
- 2010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유럽이 시오니스트를 중동에 떠넘겨, 차라리 알래스카를 그들에게 줘라
- 2011 IAEA : 이란 핵개발 보고서 발표
- 2012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 이란 공격, 우리가 결정한다.

1.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1] 이스라엘 땅에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1.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평화협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13 일, 이스라엘이 건국 후 처음으로 걸프지역 아랍국가인 아랍에미리트(UAE)와 평화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양국에 대사관을 설치하고, 텔아비브와 아부다비간 직항도 두게 되는 등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팔레스타인, 이란, 헤즈볼라는 아랍에미리트가 배신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협정에 따라 요르단강 서안지구 합병 계획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안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으며, 네타냐후 총리는 주권 적용을 잠시 보류하는 것이지 철회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979년 이집트, 1994년 요르단과 평화협정을 맺는데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아랍국가와 평화협정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단, 오만, 바레인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평화협정을 맺는 나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최종 평화협정 발효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네타냐후 총리가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며,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쓰임 받게 하옵소서.
- ☆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 사이의 진정한 평화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게 될 것을 이스라엘과 아랍의 지도자들이 깨닫게 하시며, 이스라엘과 중동을 향한 이사야 19:23~5 절의 말씀이 성취되며 중동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 19:23~25] -아랍의 구원을 약속하신 구절

23. 그 날에 애굽에서 앗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앗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앗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앗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24.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앗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25.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찌어다 하실 것임이니라사. 아멘!

2.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와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암 3:6). 아멘!

- ☆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코로나 확진자가 1,600 명 대로 지속되고 있으며, 가족이 많은 정통 유대인 가정과 그들이 많이 사는 브네이브락 지역, 동예루살렘의 아랍 마을들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의 코로나 확산을 막아 주시며 소멸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게 하시며 실업자들이 다시
- ☆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염병의 한계 앞에 놓인 열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3] 네타냐후 총리와 위정자들을 축복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 ✧ 주님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옵소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코로나 19 대처 능력과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시민 수천 명이 모여 반네타냐후 시위를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국을 다스려 주시며, 주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옵소서.**
- ✧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며 그 땅을 향한 언약을 성취하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에서 **동성애가 사라지게 하시며 동성애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겔 33:11). 아멘!

[4]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 대형폭발 참사가 일어나 고통 가운데 있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긍휼히 여겨 주시며, 속히 회복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베이루트가 하나님안에서 소망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이 그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 ✧ **하마스**가 다시 이스라엘로 화염 풍선을 날려 보내 60 여 곳에 불이 났습니다. 하마스의 견고한 진과 악한 계약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가자지구)**
- ✧ **헤즈볼라**의 완악함을 다스려 주시며 이란으로부터의 지원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이란의 핵 프로젝트가 소멸되게 하옵소서. (레바논 기구)
- ✧ 이스라엘의 우방이었던 **터키**가 지금은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터키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 ✧ 이스라엘을 향한 주변국의 위협과 테러, 사이버 공격들이 무력화 되게 하시며, 이스라엘과 주변국 사이에 있는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악인들이 권세를 잃으며 마음이 선한 자들과 정직한 자들을 세워 주시며, 이슬람 통치자들이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IDF(이스라엘방위군)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IDF 내에 예수님을 믿는 청년 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 ✧ 중동 지역의 무슬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시인하여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외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그들의 영혼에 울려 퍼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예배자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 ✧ 중동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스라엘과 주변국간의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옵소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 55:7]

[5] 레바논을 위해 기도합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에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여 지났지만 피해 복구는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71 명이 사망하고, 6천 명 이상이 부상 당한 상황에서, 무너진 건물에 매몰된 사람들을 구조하고, 시신을 수습하는 작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30 만여 명은 집을 잃고 이재민이 됐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및 핸드폰 영상들이 소셜미디어에 하나 둘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날의 참담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지 교회들의 피해도 하나 둘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리아 난민을 돕는 레바논 기독교 NGO ‘자비의 승리’도 센터가 부서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베이루트 시내에 나가 음식을 나눠주고 무너진 잔해들을 치우며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 [인터뷰] 누나 마타르 / 레바논 NGO ‘자비의 승리’

“저희 센터 유리가 다 깨지고 셔터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집을 잃은 사람들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 뭐라도 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항구에 6 년간 보관돼 있던 질산암모늄이 폭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군부를 장악한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무기창고에서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나 질산암모늄 창고로 옮겨간 정황들이 하나둘 포착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공공연하게 이스라엘의 하이파 항구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하며, 레바논 주거 지역 곳곳에 무기들을 숨겨놓고 로켓 발사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리는 “80 만 명이 사는 하이파 창고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수만 명의 사망자를 낼 수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레바논과 적대 관계인 이스라엘은 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국경에 야전병원을 세워 부상자들을 치료해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레바논 당국은 이를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폭발 사고 이전부터 이미 경제적,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던 레바논 시민들은 정부와 헤즈볼라를 향한 불만으로 매일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레바논 총리와 내각이 모두 사퇴했지만 시위는 멈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누나 마타르 / 레바논 NGO ‘자비의 승리’

“이슬람은 이 나라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을 눈 멀게 해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눈을 여실 수 있습니다. 레바논이 중동의 등대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krm news>

II. 이스라엘의 회복과 공흥을 위해 기도 하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속 8:13]



[1] 전 세계적으로 알리야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불 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변성하던 것 같이 변성하리라”
[속 10:8] 아멘!

- ☆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공흥을 베풀어 주시며 영원한 자비로 그들을 공흥히 여겨 주옵소서. 반유대주의, 코로나 19 바이러스,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열방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러시아의 유대인 자치주에 있는 유대인들, 구소련 지역의 가난한 유대인들, 에티오피아 지역의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 ☆ 유대 민족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듣고 모두 돌아오게 하옵소서.

☆ 이스라엘 국적의 취득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국적의 취득은 크게 **출생, 귀환법, 거주, 귀화** 등 4 가지 방법에 의해 가능하다. 출생에 의해서는 **첫째**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있는 부모에게 태어나거나, **둘째** 부모 중의 한 사람이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있을 경우,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 귀환법, 거주, 귀화 등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국적을 얻게 된다. **셋째** 만약 부모 중 한명이 사망한 후 태어난 아이는 사망한 부모가 이스라엘 국적을 소지하고 있었을 경우 위에서 언급한 사망시점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의해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한다. **넷째**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경우, 이전에 어떠한 국적도 소지한 적이 없으면 법에서 언급한 제한을 받게 된다. 제한은 18 세에서 25 세 생일 동안 국적을 신청할 것과 이스라엘에서 5 년간 연속하여 거주했을 경우 국적 취득 신청을 제출하면 즉시 취득할 수 있다.

1950 년 이스라엘 크네셋(국회)은 “모든 유대인들은 이 나라로 이민 올 권리를 갖고 있다” 라고 시작되는 귀환법을 통과시켰다. 2 천 년에 걸친 방랑의 역사가 공식적으로 끝난 셈이었다. 이 때부터 모든 유대인들은 공중 보건과 국가 안보 그리고 전체 유대인들에 대하여 위협스럽지 않다면 바로 이스라엘 국적을 부여받게 되었다. 즉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도착하는 즉시 올레(Oleh, 이민자) 신분을 부여받고 이스라엘 국민이 될 권리를 얻게 되었다. 귀환법에서의 유대인이란 유대인 엄마에게 태어난 경우 또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으로 다른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1955 년 개정된 귀환법은 다음에 해당되는 유대인 이민자들에 대해서 올레 신분증의 수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했다. 첫째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해를 미치는 활동에 가담한 경우, 둘째 공중보건이나 국가안보를 위협할 경우, 셋째 공공안녕에 해를 끼친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1970 년 귀환법은 2 차로 개정되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유대인 자녀들과 손자들, 배우자들과 자녀들과 손자들의 비유대인 배우자들까지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받도록 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 개정안은 타교와의 결혼으로 가족들이 분리되는 것을 막고 선조의 신분으로 인해 비 유대인으로 취급당하게 될 유대인들의 이스라엘로의 안전한 정착을 위한 배려이다. 하지만 유대인 중 자발적으로 타교로 개종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영국통치령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을 위해 국적법에 특별 조항이 만들어졌다. 1948 년 독립 이후 1952 년 국적법 개정 전까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거주 또는 귀환에 의한 이스라엘 국적법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성인으로서 이스라엘 국적의 취득을 원할 경우 내무부의 심사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이 요구된다. 첫째 신청서를 내기 전 5 년 이내에 3 년을 이스라엘에서 거주한 경우, 둘째 이스라엘에서 영구 정착을 원하는 경우이거나 이미 정착했거나 앞으로 정착할 의향이 있을 경우, 셋째 이전의 국적을 포기하거나 이스라엘 국민이 되는 순간부터 국적을 포기할 것임을 증명할 경우이다.

유대인

아쉬케나지, 세파르디, 미즈라히

유대인이라면 같은 인종이라고만 생각했던 사람에겐 이런 논란이 낫설뿐더러 출신이 다른 유대인의 차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스라엘을 찾는 이들이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미디어를 통해 보던 유대인과는 다른 모습의 유대인들이다. 보통 유대인 이미지는 검은색 코트와 털모자를 쓰고 귀밑머리를 길게 모아 늘어뜨린 초정통파 종교인의 모습 아니면 서구인과 별 차이가 없는 유럽인의 모습이다. 때론 좁은 얼굴과 부리부리한 눈매, 때부리코가 유대인의 전형적인 외모로 대변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모두 유대인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렇다면 ‘유대인(Jews)’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유대인을 강제수용소에 보내고 처참한 학살을 자행했던 나치 독일은 아리아 인종의 혈통적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아리아 인종을 구별하는 신체적 기준, 즉 머리털이나 눈동자 색깔, 코의 높이, 턱의 모양 등의 구별법을 세웠다. 하지만 유대인 분별기준으로 사용할 수는 없었다. 이미 유대인은 외모로는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치는 혈연관계에 의거해 조부모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분류했다.

유전학 연구결과 유전자검사로 유대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한다. 최근 유방암 발병을 우려해 절제수술을 받은 안젤리나 졸리가 사전검사에서 발견한 BRCA1 유전자 변이가 바로 아쉬케나지 유대인 여성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유전자이다.

그러나 유대인의 범주는 좀 더 다양하다. 이스라엘 정부에서 ‘귀환법(the Law of Return)’에 따라 이민을 허용하는 유대인의 기준을 보면 유대교 율법을 따르는가에 상관없이 혈통적으로 부모가 유대인인 경우 조상 중 유대인이 있었던 경우 유대교로 개종하고 율법과 관습을 따르는 경우 등이다. 에티오피아에 살던 유대인(Beta Israel)이나 인도에 뿌리를 내린 코친 유대인(Cochin Jews) 등은 수 천년 전 흩어진 유대인의 후손으로 현지사회에 동화돼 살아왔으나 안식일, 정결율법 등 종교적 생활양식을 지켜 유대임을 인정받은 이른바 ‘잃어버린 지파(Lost Tribes)’다.

직계 후손들도 조상들이 살던 지역에 따라 출신이 구분된다. 크게 **아쉬케나지(Ashkenazi)**와 **세파르디(Shefardi)**, 그리고 **미즈라히(Mizrahi)** 유대인으로 나뉜다. 아쉬케나지는 독일을 가리키는 말 뜻 대로 독일을 포함한 유럽 전역에 살던 유대인을 말한다. 현재 이스라엘의 유대인 인구 중 약 4백만 명, 전세계 유대인 중 80% 이상을 차지한다. 가장 인구가 많은 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들이 많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지그문트 프로이트, 시온주의 주창자 테오도르 헤르츨이 이 범주에 속한다.



아쉬케나지 : 벤자민 네타냐후(현 총리),
세파르디 : 실반 샬롬(전 부총리),
미즈라히 : 샤울 모파즈(전 국방부 장관)



아쉬케나지 유대인



(세파르딤 가족의 사진)



(인도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의 가족사진)

세파르디는 스페인어란 어원 대로 이베리아반도 출신 유대인이다. 넓게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출신을 포함하고, 아쉬케나지를 제외한 유대인을 통칭하기도 한다. 이스라엘에 140 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차지하고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은 상업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왕실 천문학자로 천측력을 발명한 아브라함 자쿠토, 철학자 바뤼흐 스피노자 등이 세파르디 유대인에 속한다.

미즈라히는 ‘동방’이라는 뜻으로 중동, 주로 예멘 이라크 시리아 이란 등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을 말한다. 최근에는 모로코 알제리 수단 등 북아프리카의 마그레비(Maghrebi) 유대인도 미즈라히 유대인의 범주에 든다. 140 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 가수이자 ‘아메리칸 아이돌’ 심사위원인 폴라 압둘(Paula Abdul)가 시리아 출신 미즈라히 유대인이다.

☆ 피부색 검을수록 차별 심해

유대인이란 하나의 범주에 묶여 있지만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고, 출신지별 생활양식, 종교적 성향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한 이들 사이에는 갈등과 차별, 반목이 존재한다. 단순히 문화적 차이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수준 차이로 인한 갈등요인이 크다. 아쉬케나지 유대인들은 부유층이 많았고, 건국 초기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한 키부츠나 모샤브 같은 농경지와 여러 혜택들로 인해 넉넉한 부를 축적하고 살고 있다. 하지만 원래 낙후된 생활로부터 도망쳐 온 세파르디나 미즈라히 유대인들은 건너올 때부터 하위계층으로 편입되었고, 대부분 기능공, 상인이어서 초기 농업 위주 정착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이들은 통혼에도 부정적이었다. 1950년대 후반에는 서로 다른 출신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 비율이 14%에 불과했고, 1990년대 후반 들어서도 30%를 넘지 못했다. 이스라엘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아쉬케나지가 미즈라히 유대인에 비해 대학진학률이 두 배 높으며, 수입도 아쉬케나지가 미즈라히 유대인보다 36%나 높았다. 미즈라히 유대인의 실업율은 아쉬케나지 유대인보다 5 배나 높은 7.5%로 조사됐다.

백인에 가까운 아쉬케나지 유대인이 상위계층을 차지하고 남부유럽 출신의 세파르디, 중동 출신의 미즈라히, 그리고 인도계와 에티오피아계 유대인으로 갈수록 피부색이 검어지면서 사회계층의 하위를 차지한다. 현재 이스라엘의 최하위 계층으로 꼽히는 집단은 에티오피아로부터 건너온 흑인 유대인이다. 2009년 한 학교에서 입학할 거부당한 사건이 이슈가 됐고, 최근 남부 이스라엘에서 집주인이 이들에게 세주는 것을 거부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1990년대 말까지 이들이 현혈한 혈액을 전량 폐기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얼마 전에는 에티오피아 이주 여성들에게 강제로 산아제한 주사제를 투약한 것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벌어졌다.

2013년 미스 이스라엘 월드컵은 처음으로 에티오피아계인 이티쉬 티티 아이나우(Yityish Titi Aynaw)가 차지했다. 정치적 고려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그렇더라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인종의식을 새롭게 하고 갈등을 희석시킬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이들이 많다.

<http://kor.theasian.asia/archives/87744>



III.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

[1]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인이 어찌 그 쪼트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사 49:15~16). 아멘!

† 예루살렘을 보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⁴¹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⁴²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⁴³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⁴⁴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매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눅 19:41~44).



“예수님의 이름으로”

יְשׁוּעָה בְּשֵׁם יֵשׁוּעָה (b'shem yeshu'a) : 베셈 예수아

†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원했던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¹⁻²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³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롬 9:1~3). 아멘!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롬 10:1). 아멘!

“²⁵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총명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²⁶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롬 11:25~26a). 아멘!

†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 유대인들의 마음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며, 유대인 각 사람이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 무너진 영적 성전이 재건되며, 말씀 부흥과 신앙의 개혁,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참된 예배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²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²⁵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²⁶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²⁷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겔 36:24~27).

“¹⁶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¹⁷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전 3:16~17).

[2] 정통 유대인들의 눈에 덮여 있는 수건을 제거해 주옵소서!

“¹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 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¹⁷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후 3:14,17]

진리의 성령님! 이스라엘 전체 인구 840 만 명 가운데 초정통파 유대인이 약 12%로 100 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유대교의 가르침에 따라 엄격한 종교 생활을 하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 중의 마른 뼈입니다.

- ☆ 정통 유대인 마을인 **베아쉐아림**과 **브나이브락** 지역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 지역에서 비밀리에 모이는 믿는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 ☆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게 하시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정통 유대인들의 강박한 마음을 만져 주시며,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아들라힘**의 세력이 무력화 되며 그들도 구원받게 하옵소서.

<살롬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초정통파 유대인 마을인 베아쉐아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믿는 유대인 A 사역자와 교류하며 기도 지원을 시작합니다. A 사역자는 베아쉐아림 지역에 있는 예쉬바(유대교 신학교)나 유대교 회당에 있는 초정통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살롬 이스라엘>은 베아쉐아림 거리중에서도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B 거리를 품고 기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곳에는 세계적인 규모의 유대교 회당이 있으며, 이 회당에서는 예수님을 믿게 된 몇 명의 유대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A 사역자는 이들을 ‘보물’이라고 부릅니다.

- † 구원의 하나님! 베아쉐아림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견고한 진이, 여러교성이 무너졌듯이 녹아내리게 하옵소서.
- †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초정통파 유대인들을 묶고 있는 유대교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두려움의 영, 우상숭배의 영, 율법의 수건들을 제거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안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 † **A 사역자, B 거리, B 거리에 있는 예쉬바와 회당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바람으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B 거리에 부어 주시며,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요 6:44). 아멘!

- † 이미 복음을 영접한 ‘보물’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쉬바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들을 도울 기도와 재정 후원자들을 많이 붙여 주시옵소서.
- † 기도 동역이 그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 † B 거리에 있는 예쉬바와 회당에 소속된 정통유대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며,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옵소서.

“²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³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 2:2~3). 아멘!



The Suffering Servant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 절에서 그 “종”의 고난이 필요했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종”은 남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그의 고난의 대리적 성격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란 이사야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며 또한 오늘날의 모든 믿는 자들을 포함합니다. 우리 역시 죄로 인하여 목자 잃은 양들과 같이 잘못된 길을 간 것입니다.

“우리가 제 길로 갔거늘” (We had gone astray) 이라는 말에서 그 동사의 강세를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죄악”이란 단어는 실제적인 범 죄를 언급할 뿐 아니라 그 범 죄가 포함하는 죄책과 거기에 따르는 형벌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종”이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어기고 그릇된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악을 그 “종”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의 것이었던 그 죄책과 더불어 무서운 형벌이 그에게 전가 되었습니다.

- 이 구절에는 **전적부패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로 가득차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그릇된 길로 가 버렸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상태에 있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여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주권 교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종”의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 “종”에게 담당시킨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본 절에는 또한 **은혜에 의한 구원 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 분에게 담당시킴으로써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에 필요한 것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 여기에 또 **대속적인 형벌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우리 대신 그 분에게 임했습니다.
- 또한 이 구절 속에는 **만족과 속죄의 교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종”께서 자신이 죽음으로써 죄를 제거하기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신 것입니다.
- 끝으로 이 구절에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섭리 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종”의 고난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뜻대로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었습니다.

On Beauty : 하나님의 아름다움



아름다움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신적인 영광,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다. 다른 것들과 비교할 때 종류에 있어서 지극히 높고, 본질에 있어서 훨씬 더 숭고한 신적 탁월함이 존재한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시 135:3]

우리는 아름다움의 원천이시고 그 어떤 아름다움 보다 더욱 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7 가지 속성들을 소개합니다.

1) 영원성과 자존성, 2) 위대하심(크심), 3) 사랑스러움, 4) 능력, 5) 지혜, 6) 거룩함, 7) 선하심
이 세상에 존재하고 경험되어지는 모든 아름다움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이 아름답게 펼쳐진 결과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다.

하나님의 탁월한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신자에게 엄청난 유익과 기쁨을 준다.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은 신자가 매일을 사는 데 무한한 연료가 된다. -터글라스 스위니

창조 :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지혜롭게 설계 되었으며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그것들의 아름다움의 근원이자 목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주어졌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정한 목적(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다)을 위해 창조된 종속적인 영역이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자연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신성모독이다. 세상은 여러 모로 아름답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뚝 솟은 네온사인처럼 번쩍인다. 에드워드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아름다운 것을 설계한 분의 성품을 외면하고서는 그 어떤 아름다운 광경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인간의 죄와 타락은 아름다운 것을 보고도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못합니다.



창조 세계에서 아름다움과 추함이 공존하는 이유는 타락 때문이다. 타락은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결핍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찬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 회복, 그리고 더 큰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아름다운 그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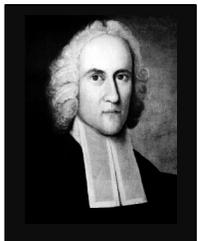
1. 예수님이 오심은 죄와 타락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접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을 구원

그리스도가 사람의 영혼에 해같이 솟아오르면 모든 것이 되살아나기 시작한다. 의지와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영혼의 모든 기능이 따당히 해야 할 일을 하기 시작한다. 영혼은 이제 깊은 잠에서 깨어난다. ... 전에는 침묵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다.

2. 예수님이 오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더 직접적으로 접하게 하심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충만하게 드러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충만하게 드러내셨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직접적으로 더 크게 경험하게 된다.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



조나단 에드워즈는 청교도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경건을 훈련 받았다. 그는 청교도 목사, 신학자, 원주민 선교사였으며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독창적인 철학적 신학자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매우 다양한 분야에 관한 저술을 남겼으나, 주로 개혁주의 신학과 신학적 결정론의 이론적 바탕, 청교도 전통에 관한 저작들로 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유명한 설교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은 대각성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는 1758년 1월 뉴저지 대학교 (College of New Jersey, 지금의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이 되었으나 천연두 예방 인두법 시술의 부작용으로 3월 22일 사망하였다.

그의 딸 에스터 에드워즈(Esther Edwards)의 아들이 미국 부통령을 지낸 애런 버 주니어(Aaron Burr, Jr, 1756 - 1836)이다.

교회 : 충만해져 가는 아름다움의 장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바라보고 경험하도록 영혼이 소생한 이들의 모임이자 그리스도의 몸이다.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맞보는 것은 언제나 교회의 특권이고 낮설고 적대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리고 확장하는 것은 언제나 교회의 사명이다.

-더글라스 스워니

천국과 삼위일체 : 궁극적 아름다움

창조,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시면서 무한한 행복을 누리신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무한한 행복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소망하며 또한 경험해 나가야 한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경험하길 원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탐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세상에 펼쳐지는 것을 연구했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아름다움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초월자를 완전히 배제한 채 초월성을 담고 있는 주제를 연구할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이다. ...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시라면 에드워즈가 보여 준 것처럼 당연히 우리도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복음은 우리의 상상력이나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사랑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것들에 연료를 공급하고 불타오르게 하며 가장 아름다운 분이신 하나님에게 향하도록 만든다. 어떤 비유, 이미지, 묘사도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담아내는 데 결코 충분하지 못하다. [더글라스 스워니]

우리는 세상의 헛된 아름다움에 속아 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진정 그의 아름다움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는 마치 하나님에 대해 다 알고 있는 듯이 행동합니다. 이제 더이상 큰 관심을 두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광대 하심과, 영원 하심,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그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우리의 작은 머리 안에 가두고 우리 수준으로 제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더 알기 원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형언할 수 없는 그분의 아름다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채로 살려고 애쓴다면, 우리 자신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이다.

[제임스 패커]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한 선포기도

1.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예슈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라

큰 임금의 도성,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왕, 예슈아의 평강으로 충만할지어다!
예루살렘을 나누고 왕의 귀환을 막으려는 세력들은 스스로 분열하여 붕괴될지어다!
예루살렘을 대적해서 주변국가들을 지원하는 세력은 끊어질지어다!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벽 위의 파수꾼이 될지어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숭배의 소리는 끊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아멘!

2.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예슈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라

이스라엘내 교회마다 영혼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기적들이 매일매일 충만할지어다!
이스라엘 내에 유대인 예슈아를 알고자 하는 운동이 유행처럼 일어날지어다! 아멘!

3.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예슈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라

올해는 유대인 알리야에 대 전환점이 될지어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전세계 유대인들은 문이 닫히기 전에 속히 고국으로 돌아갈지어다!
전 세계 모든 한인교회 성도들은 알리야의 깃발을 보고 이스라엘 선교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4.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예슈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라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악한 세력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세계를 뒤덮고 있는 악한 바이러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아멘!

5.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예슈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라

전세계 교회에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 임할지어다!
미국을 혼란케 하는 모든 견고한 진들은 속히 이 땅에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미국의 모든 교회는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영적으로 무장하고 다시 일어날지어다!
한국을 공산화 하려는 배후의 세력들은 스스로 붕괴되어 떠나갈지어다!
남북한은 복음으로 평화통일을 이룰지어다! 아멘

6. 만왕의 왕이시요 유대인의 왕이신 메시아 예슈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라.

모든 성도들은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일어날지어다!
일루미나티, 예수회, 프리메이슨, 종교통합등 세계단일정부 적그리스도의 꾀계는 적나라하게 드러날지어다.
우리 주 예슈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계선교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모든 간구를 메시아 예슈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GMI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의 센터가 되고 있는 5 개 도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Acre, Haifa, Afula, Be'er Sheva, Jerusalem.

- **성령께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웨스트뱅크 지역 전도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청년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신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새로 입학 할 신입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Vishnyatsky Marat and Lily
- Ambrasovich Tanya
- Benisovich Carolina
- Nazarovs Andrey & Tanya
- Bykhovtsy Andrey & Natalia
- Shalev Leah
- Korobov Marina
- Mikaelyan Artyom
- Aripov Shirel

[청년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Choi David
- Tsoi Leah
- Mikaelyan Arthur
- Galeev Damir
- Sabit Dudu
- Aripov Khaviva
- Korobov Masha

RUSSIAN 교회를 위한 기도

김이콜 목사님과 아리나 사모님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고려인 신학교와 전 세계 제자들의 안전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중보자들의 안전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도다라바!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race World Prayer Center

기도지 제작: 은혜교회 중보기도국
www.gracewpc.com
prayforgrace82@gmail.com